

현장포커스



박정수 씨엔에프시스템 대표 인터뷰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13:00

장소: 씨엔에프시스템 사장실

학력:

- 경기대학교 경영학(정부회계 전공) 박사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

주요경력:

- 씨엔에프시스템(주) 대표이사
- (주)골프존뉴딘홀딩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2년~2017년)
- 한국행정학회 4차산업혁명과 정부혁신 위원회 공동위원장
- 한국정부회계학회 부회장
- 한국지방재정학회 대외협력이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미래전략 자문위원

“코로나로 인한 뉴노멀 시대의 행정혁신 및 행정개혁을 선도하는 IT 회사”

Q1.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간 내주시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씨엔에프시스템은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씨엔에프시스템 대표 박정수입니다.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씨엔에프시스템은 2009년 설립된 회사로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 재정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243개 지방정부의 예산재무회계 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수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자체 솔루션인 “올샵”을 개발하였습니다. 올샵 ERP는 조달의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이 쉽게 조달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공공기관의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요구됩니다. 올샵 ERP 솔루션은 시스템 구축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고 예산절감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맞춤형 ERP로 행정개혁과 행정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씨엔에프시스템의 추구하는 바입니다.

Q2. 씨엔에프시스템의 태동과 함께 현재까지 경영하고 계신데 대표님만의 경영철학과 씨엔에프시스템의 기업문화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2. 2009년 설립된 당사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경영이념으로 고객·상품·인재(직원)가 함께하는 기업입니다. 씨엔에프시스템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미래는 고객 여러분들의 만족을 바탕으로 꿈과 이상이 실현되는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실을 고객, 조직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최고로 모시는 고객,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직원, 열과 성을 다해 만든 상품(올샵)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며, 이 자산을 소중히 하여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씨엔에프시스템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차가운 머리로 현실을 바라보는 지혜와 뜨거운 가슴으로 고객을 생각하는 열정이 있는 기업입니다. “길은 갈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열리는 법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는 생각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씨엔에프시스템만의 기업문화는 스토리가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과 회사, 고객과 직원, 그리고 직원과 직원 간에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한편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업문화는 고객과 회사, 회사와 직원을 끈끈한 유기체로 연결하여 하나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Q3. 씨엔에프시스템이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A3. 당사는 공공부문 통합경영정보시스템(TBM), e나라도움 연계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공공기관 ERP 솔루션인 “올샵(ALL#)”은 공공 ERP 분야의 맞춤형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올샵(ALL#)”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시스템 개발 용역이 아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ERP 솔루션을 구매하여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자. 시스템 개발 용역에서 실패하거나 무용지물인 시스템 개발에 낭비되는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모토에서 출발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100% 오픈소스, ANY OS, ANY DBMS로 개발되어 고객이 원하는 모든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GS인증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품 등록된 제품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전남도립대학 등 전국의 6개 도립대학이 예산회계·재무회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시스템 개발 용역을 준비하였으나 2018년 전국의 6개 도립대학교는 올샵 ERP를 나라장터에서 적은 예산으로 구입하여 1개월 안에 안정화시켜 전 부서가 사용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도립대학교에서 시작된 예산절감 사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인 청소년육성재단,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진흥원, 협의체, 교도소, 방송국 등에서도 올샵 ERP로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빠른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Q4. 공공분야 시장 개척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기 진입장벽도 높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공공분야 재정회계”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며 향후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4. 당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재정회계 전문기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시스템을 개발 공급하였으며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많은 공공기관의 IFRS(국제회계기준)와 국가회계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사업초기에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한번 맡은 업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수하여 고객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고객들의 인식에 “예산·회계 = 씨엔에프시스템”이라는 등식을 각인 시켰고, 공공재정분야에서 ‘씨엔에프시스템’이라는 회사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야심작인 올샵(ALL#) 솔루션을 시장에 선보이며 공공기관 ERP 시장에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기존에 SI 사업으로 진행되던 사업들을 올샵(ALL#) 솔루션 도입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새로운 바람으로 공공기관 ERP 시장의 최고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Q5. 정부는 디지털혁신을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올해 한국행정학회 4차산업혁명과 정부혁신 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정부 혁신을 위해 어떤 부분을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A5. 데이터3법이 통과 된 후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IT 업계에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데이터기반 정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문가 영입 및 직원대상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교육이 필요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에 따른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표준용어사전 활용과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위한 체계적인 자료관리,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분석결과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Q6. 대표님은 국내 전자정부 시스템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자정부 수출 관련 최근 분위기와 국내 우수한 기술을 해외 전파하기 위해 기업이나 정부의 어떤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A6. 해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의 경우는 자체 기술력이나 검증된 시스템 도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외로 시스템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는 주로 개발도상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산 환경이 우리보다 낮아 기술적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범용성이 있는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픈 소스, ANY OS, ANY DBMS 등 기술적인 범용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정도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시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특별한 노하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SAP 등의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해외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외 네트워크와 영업력이 있는 대기업과 전문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 해외진출을 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진은 정부 및 공공기관, 실제 업무 및 시스템 구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으로 추진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Q7. 대표님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A7. 제 인생관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 하지 말자입니다. 저 자신 역시 그렇게 살아 왔다고 자부하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항상 웃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언제나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싶은 책, 좋아 하는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에 밑줄이 치고 그것을 틈틈이 필사를 했습니다. 대학노트 40권이 넘었으니 보통사람들이 보면 지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게 저의 자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1권 2권 쌓여 저의 지적 보고가 된 것입니다. 강의할 때 남을 설득할 때 마다 이 지적 보고가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책 읽고 밑줄치고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 듣기를 좋아해 시간 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적지만 가끔씩 걷기 운동을 합니다.

Q8. 끝으로 씨엔에프시스템의 10년 후 모습과 각오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8. 2030년 씨엔에프시스템은 공공분야 재정회계의 제일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씨엔에프시스템만의 장점들을 극대화하여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잘 하는 분야에서는 선두에 서서 다른 기업과 상생하며 우리나라 공공분야 IT 기술발전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고 매진하면서 발전하는 씨엔에프시스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